

‘나의 벽(MY BARRIER)’ 이야기 당선작

참여 작가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목과 글 일부를 공개합니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글 전체와 청년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번	제목
1	흉터가 된 나에게
2	경계선 사이의 소중함
3	감옥 안의 죄수, 이젠 탈옥을 준비합니다
4	강북 // ?
5	예고예고

제목	흉터가 된 나에게
	그날도 여느 날처럼 평범한 저녁이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셨고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광고가 지루한 나머지 부엌으로 가 할머니 등에 업히려 했고 그 무게를 못 이긴 할머니는 중심을 잃으셨다. 나는 떨어지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치게 되었고 그 뜨거운 국물들은 내 위로 쏟아졌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내 피부는 때 밀리듯 벗겨졌고 뜨거워서 배를 만지자 배의 피부도 벗겨졌다. 할머니는 몹시 당황하셨고 나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때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우리는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급하게 연락받고 온 어머니는 실려 가는 내 입에 딸기 우유를 먹여 주셨다. 정신을 잃어가며 통화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실려 가는 와중에 딸기 우유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 같다. 그 후 며칠은 전신에 붕대를 감은 채 입만 살아있었다. 너무나도 심심했기에 뚫린 입으로 쉴 새 없이 보이지도 않는 옆 환자분들과 대화했다. 그때 내 나이가 8살이었다. 병원에서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모두가 나를 살갑게 대해 주셨고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평범하게 그저 아이 대하듯 대해 주셨다. 병원에는 눈이 없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폐가 아픈 사람 등등 그곳에서 우린 서로를 전혀 이상하게 보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1년에 가까운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나를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다들 나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거나 신기해하며 나를 훑어져라 쳐다봤다. 나는 할머니께 여쭙보았다. ‘할머니 다들 나를 왜 보는 거야?’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스카프로 내 얼굴을 가려주셨다.

제목	경계선 사이의 소중함
그런데 직장인이 되고 보니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던 뿌연 애매함이 소중했음을 알아가고 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선명한 자격증과 명확한 직급을 달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만의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넓고 얇은 지식과 경험이 반짝였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경험, 엘리트 친구들을 통해 배운 간접경험, 융합학문에 대한 지식, 연구에 참여해 본 경험, 창업을 도운 경험, 어른들과 어울려 본 경험 등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도 아닌 알팍한 경험일 뿐인 데도 일생을 선명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애매함인데 지금은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선명함이 정답인 줄 알고 나를 프레임에 갇혀 가두었다면 나는 그저 '무매력 인간 1'이 되어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본성인 애매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공부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애매하게 살아와서 앞으로 어딘지 모르는 모호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지 내 미래가 기대된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께 "안녕히 가세요 -서울시-" 표지판과 "환영합니다 여기부터는 경기도입니다" 표지판 사이의 땅은 누구 땅인지 물으면 아버지는 항상 '네 땅이다' 라며 답하셨다.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셨겠지만 맞는 말씀 같기도 하다. 명확한 경계선 사이의 그 애매한 곳에서 내가 자라났고, 애매함이 앞으로도 나를 나답게 해줄 것이다. 나는 경계선을 긋지 않고, 자유롭게 이 곳 저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갈 것이다.	

제목	감옥 안의 죄수, 이젠 탈옥을 준비합니다
나에게 벽이란, 스스로 들어간 감옥이다. 감옥에선 교도관의 말을 잘 들으면 밥도 나오고 잠잘 곳도 제공된다. 가끔 생활고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 다른 의미로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험한 세상을 피해 감옥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세상에 맞서 날아가기보다, 자유롭지 않지만 안전한 감옥을 향해.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보다, 자유롭지 않지만 남들을 따라 안전한 길을 향해. 죄수들이 물리적인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긴다면, 나는 정신적인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기는 기분이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저 어른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삼았을 뿐이다. 매일매일 해야 할 숙제와 가야 할 학원, 준비해야 할 시험을 준비하기 바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 내 또래의 많은 친구도 그랬을 것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기대하는 일들(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대외활동 등)을 하기에 바빴다. 나의 하루는 늘 '하고 싶은 일' 대신 '해야 할 일'로 가득했다.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대학생이 되면서 내가 했던 생각은 '대학생이 되어서 나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야지!'였다. 하지만 평생 안 해본 고민을 이제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내 길을 떠나 나서야 했던 그때. 난 기름이 바닥난 자동차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라도 알아야 시작이라도 할 텐데,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의지도 없으니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제목	강북 // ?
당고개역. 이 역은 나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25년을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서울의 가장 외곽. '서울에 산다'는 마지막 미련인 탓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지 못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인지, 당고개도 변하지 않았다. 개미지옥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 집 앞 문방구는 상징적이었다.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변해. 우리 집 앞 다령문구 좀 봐. 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을걸?"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게 내 인생의 불운처럼 여겨진 건 19살 즈음이었다. 계급 상승의 첫 번째 단계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에 다녀야 했다. 정시로 가더라도, 강남 학원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온 엄마는 무리해서 강남에 보냈다. 나는 벽을 넘어야 했다. 평일에는 당고개에서, 주말에는 강남에서 보냈다. 벽을 넘는 설렘은 딱 하루치였다. 내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배워온 규칙들이 자꾸 어긋났다. 학교에서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 아이들은 소문의 대상이자 놀림의 대상이었다. 학원 애들은 다 원어민 같았다. 학원에서 나는 영어를 읽지 못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학의 네임밸류에 집착했다. 학원에서 대학에 너무 집착하는 건 촌스러운 생각이었다. 그 너머를 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대학에 집착했다. 학원의 아이들이 내 신발을 보고 내가 어느 지역 애인지 맞히는 걸로 내기를 했다고 했다. 내 신발은 모두 휠라였다. 거기서 휠라는 강북 신발이었다. 휠라는 다른 브랜드보다 4~5만 원가량 싼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강북스러운지 재단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벽을 쌓기 시작했다. 내 신발이 얼마나 후진지 보느라 벽 너머가 잘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닥만 보고 학원에 다닐수록 강남의 삶을 더 과장되게 상상했다.	

제목	에고에고
퇴사 이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처 없이 떠돌다 정신질환 당사자로 구성된 활동가들을 만나게 된다. 덕분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우울증, 불안장애, 건선, 특발성 과다수면장애, 특발성 사지운동장애 등의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삶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세 번의 병원 진료와 네 번 가량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연애도 하고, 결혼자금도 모으고, 자기개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효도도 하고, 경조사도 챙기는 '기본값'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능력주의, 경쟁주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말이다. 결국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한 벽은 건강한 몸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건강중심주의 사회와, 그것에 맞춰 비대해진 나의 에고였다. 나는 몸이 아프지만, 정신질환이 있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포기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우울감.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 면역질환이 있지만 나는 근무도 성실히 잘 하고, 사회생활도 잘 하고, 업무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입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매몰비용이 되는 게 아까워서 아니라는 걸 마음으론 알면서도 머리로는 계속 부정했다. 그러다 내가 이 세상의 '보편'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야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